每日新聞
2017년 08월 29일
03면 (종합)

"과일엔 DDT 없으니 안심하고 드세요"

재배 농민·전문가 주장
추석 앞두고 불똥 우려

추석 명절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DDT 파동'으로 과일에도 혹시 농약 성분이 검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 농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안동지역 사과재배 농민들은 DDT 검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동시 임하면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A(54) 씨는 "어렸을 때 이를 잡으려고 머리에 뿌리던 살충제가 DDT였는데, 40여 년 전에 판매가 금지됐다"며 "지금은 물론 당시에도 냄새가 나는 농약은 과일에 뿌리지 않았다. DDT는 냄새가 워낙 심해서 과일에는 살포하지 않던 농약 중의 하나였다"고 했다.

다른 농민 B(58) 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웰빙'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는 문화가 보편화하다 보니 농작물 재배 방식도 사뭇 달라졌다"며 "요즘은 일반 농약보다는 친환경 약제를 위주로 방제하는 데다,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논란이 된 농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과민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DDT는 산업화가 빨리 시작된 나라일수록 오염이 심한데 우리나라는 오염도가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임무혁 대구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농약을 사용등록할 때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 이상이 되면 등록을 못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DDT는 분해가 되지 않아 사용을 금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또 "DDT가 생물 농축성이 강해 어류나 동물에서 일부 검출되는 것은 맞지만 그 수치가 높지 않으며, 과일·채소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상 출하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거쳐 검사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감 없이 과일·채소를 섭취해도 된다"고 했다.

안동 김영진 기자 solive@msnet.co.kr

(15.0*10.6)cm